

## 성간(成侃)의 〈용부전(慵夫傳)〉을 통해 본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와 회복 과정

강미정\*

— <차 례> —

1. 서론
2. 성간의 〈용부전〉에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
3. 성간의 〈용부전〉에서 찾는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과정
4. 결론

### 〈국문초록〉

성간(成侃)의 〈용부전(慵夫傳)〉은 게으름을 가탁한 작품, 게으름을 표방하고 있는 은일군자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며, 이규보의 〈용풍(慵諷)〉과도 관련되고, 성현의 〈조慵(嘲慵)〉에까지 연결되는 작품이다. 특히 〈용부전〉은 게으른 인물로 표상되었던 용부가 실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실 근면한 덕목을 강조했던 조선조 사회에서나 바쁜 일상이 익숙한 현대 사회의 시각에 견줄 때에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부전〉에서 자폐적인 게으름을 보이던 용부가 성실의 표상과 같은 근수자까지 깨우치면서 자신도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마치 극적으로 병을 이겨낸 투병의 과정에 견줄 수 있다.

그래서 〈용부전〉이 특별히 어떤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환기하고 그 문제적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작품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용부전〉의 용부의 게으른 모습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이었다. 그래서 용부의 모습과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을 비교한 결과 많은 부분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용부가 근수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마침내 게으름을 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정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용부전>에서 용부가 자신을 계도하려고 온 근수자(勤須者)에게 준엄하게 이른 말은 실은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위태로움에 대한 경계이며,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이나 열정보다는 압박에 눌려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수많은 일중독자들에 대한 경계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간의 <용부전>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적 힘과 일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성간의 <용부전>은 이규보의 <용풍>과 성현의 <조용>과도 유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학치료현장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 <용부전>과 함께 <용풍>, <조용> 등을 작품서사로 활용한다면 각각의 특장에 따른 치료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용부전>, 용부, 근수자, 게으름, 은둔형 외톨이, 일중독, 문학치료, 용풍, 조용

## 1. 서론

이 글은 성간의 <용부전><sup>1)</sup>의 용부에게서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은둔형 외톨이<sup>2)</sup>의 속성을 탐색하고, <용부전>에 나타나는 용부의 회복과정

1)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49~50면 참고. <慵夫傳>은 鮮初의 저명한 文人 眞逸齊 成侃(世宗 9년~世祖 2년, 1427~1456)이 世俗의 名利를 超越한 放達不檢한 삶의 태도를 意托傳의 樣式을 빌어 滑稽의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글은 그의 문집 『眞逸遺稿』와 『東文選』에 수록되어 전해온다.

2) 이소베 우시오 지음,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51~73면 참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진단명은 없으며, 좁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는 진단적인 측면에서는 인격장애에 해당된다. 은둔형 외톨이에게 주로 붙여지는 병명은 사회공포장애, 회피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분열병적 인격장애 등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은 사회공포장애와 회

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문학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성간의 <용부전>을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 보게 된 것은 <용부전>의 용부와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게으른 사람으로 비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sup>3)</sup> 또한 성간의 <용부전>은 특히 게으름에 빠져 대인관계마저 단절된 용부가 게으름에서 벗어나면서 대인관계도 회복되는 과정이 마치 극적으로 병을 이겨낸 과정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성간의 <용부전>은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성간의 <용부전>은 게으름을 의인화한 가전체(假傳體) 소설이며<sup>4)</sup>, 술과 기생 놀음 앞에서는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진다는 인간의 약점을 풍자한 작품이었으며<sup>5)</sup>, 지은이인 성간의 삶을 자탁(自托)한 전(傳)<sup>6)</sup>이고, 전기우언(傳記寓言)에 속한 작품이기도 하다.<sup>7)</sup>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성간의 <용부전>에 등장한 용부가 게으른 사

---

피성 인격장애이다.

- 3) 게으름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성간의 <용부전>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알려진 이규보의 <용풍(慵風)>과 성현의 <조용(嘲慵)>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성간의 <용부전>을 주로 본다. 왜냐하면 이규보의 <용풍>은 게으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계도의 취지가 강하고, 성현의 <조용>은 게으름을 즐기면서 살자는 쾌락의 취지가 강한데 비하여 성간의 <용부전>은 게으름이 고 너로부터 수반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 4) 송병설, 『假傳에 대한 異見散放』, 『명지어문학』 7집, 1975, 95~98면.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51면 참고.
- 5) 김창룡, 『한중가전문학의 연구』, 개문사, 1985, 78면.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1990, 51면에서 재인용.
- 6) 조수학, 『『<慵夫傳>의 托傳性』, 『국어국문학연구』 15집, 1973, 82~83면.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51면에서 재인용.
- 7) 윤주필, 『우언문학사와 초기소설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42면.

람의 전형처럼 보이면서도 명리에 초탈한 도인적인 모습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간의 <용부전>에 등장하는 용부를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작품을 병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작품의 건강한 해법을 우리가 수용하는 데에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성간의 <용부전>으로부터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되는 부분과 그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면, <용부전>은 우선 왕따 현상으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작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성간의 <용부전>에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성간의 <용부전>에서 게으름 때문에 문제적으로 보였던 용부의 변화가 실은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정과 다르지 않음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2장에서는 성간의 <용부전> 내용 중에서도 용부의 게으름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성간의 <용부전> 내용 중에서도 용부와 근수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정을 논의 한다.

## 2. 성간의 <용부전>에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

성간의 <용부전> 내용을<sup>8)</sup> 이끌어 가는 주요 인물은 게으름 병에 걸린

8) 성간의 <용부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람이 너무 게으러 용부라 불렸다. (2) 용부는 머리가 헐어도 게을러서 치료하지 않고, 방에서는 멍하게 앉아 있고, 길을 걸을 때에는 나무인형 같았다. (3) 용부의 가족들은 용부를 걱정

용부(慵夫)와 그러한 용부의 게으름을 바로 잡기로 결심한 근수자(勤須者) 등이다. 이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sup>9)</sup>의 모습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용부이다. 과연, 용부는 어떤 인물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문헌에 드러나는 ‘慵’에 대한 언급을 우선 참고할 수 있다. 『해동잡록』에서는 성간이 <용부전>을 지은 기록을 소개하면서 용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슨 일이든 한결같이 게을러서 용부라 불린다고 하였고,<sup>10)</sup> 『허백당집』에 실려 있는 성현의 <조용>에서 ‘慵’은 게을러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sup>11)</sup> 『동문선』과 『진일유고』에 실려 있는

하여 무당에게 빌기도 했지만 아무 차도가 없었다. (4) 그 때 학문이 성취되어 사람을 구제하리라 뜻을 품은 근수자가 용부를 고쳐 보려고 찾아왔다. (5) 근수자는 성인들의 부지런함을 상기시키면서 부지런함은 하늘의 뜻이라고 용부에게 말했다. (6) 용부가 근수자에게 일생 동안 부지런하게 산다면 일애 허덕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나면서 쫓아냈다. (7) 근수자가 용부의 말을 듣고 고민한 뒤에 방법을 알았다면서 다시 용부를 찾아갔다. (8) 근수자는 용부에게 예전처럼 부지런함을 강조하지 않고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가 즐겨 보자고 제안했다. (9) 용부가 웃으면서 소매를 떨치고 일어났다. (10) 그 뒤 수십년간의 게으름이 일시에 없어지고 마침내는 부지런함으로 일생을 마쳤다.

9) 히키코모리(일본어:引き籠もり)는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도지코모리(閉じこもり 토지코모리)라고도 하며, 2채널 등의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히키(ヒッキー)’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은 1970년대부터 도래하였지만, 히키코모리의 개념은 2005년 일본의 정신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최초로 소개하였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문화의존증후군에 의한 증상 중 하나로 히키코모리는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며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상태로 본다. 일본의 출판사 이와나미 쇼텐에서 간행하는 일본어 사전 고지엔의 2008년 1월 출간되는 여섯째 판에 ‘引き籠もり’라는 표제어로 최초 수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폐쇄은둔족(閉鎖隱遁族)이라는 말로 다듬었으나, 보통 은둔형 외톨이(隱遁型-)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위키백과

10) 해동잡록(海東雜錄)[四], 본조(本朝)[四] 성간(成侃). “...風雅 著慵夫傳 慵夫不知何許人 凡諸謀爲一於慵 號爲慵夫...”(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11) 성현(成愼), <조용(嘲慵)>, 『허백당집(虛白堂集)』권지 14, “...게을러서 나무도 아니 심고 게을러서 고기도 아니 낚고, 게을러서 바둑도 아니 두고 게을러서 집도 수리

성간의 <용부전>에서 ‘慵’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위태로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동문선』에 실려 있는 이규보의 <용풍>에서 ‘慵’은 바쁜 세상에서 자기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sup>12)</sup> 이렇게 게으른 상태에 대한 여러 내용은 ‘慵’이란 것이 일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무력한 상태에 빠뜨리고, 인생을 위태롭게 하며, 결국 심신을 고달프게 하는 위태로운 것임을 가리킨다.

우리 사회에서 게으름이 심하여 병적이 된 경우로는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들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흔히 알려진 명칭은 히키코모리이다. 히키코모리란 ‘(어떤 장소나 방안에) 틀어박히다’는 뜻의 단어 ‘히키코모루’의 명사형이다. 이 말은 예전에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이나 시골에서 숨어 지내는 정치인들에게 쓰이는 말이었다. 최근, 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등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까지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히키코모리의 특징으로는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장소에 틀어박힘으로써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얻고 있다’는 거짓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은둔(social withdrawal) 또는 비분열성 은둔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3)</sup>

---

안 하고,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질 않으며 의복이 헤어져도 게을러서 꿰매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문지를 앓고 바깥사람이 시비를 걸어와도 게을러서 분히 여기질 않으며…”(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12) 이규보(李奎報), <용풍(慵風)>, 『동문선(東文選)』 107권, “…자신의 이와 같이 내가 게으른 병이 있어서 이것을 객(客)에게 알리기를, “이렇게 바쁜 세상에 나는 게으름뱅이로 작은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해 나가지 못하며…”(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13) 김예슬,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13면 참고.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시행된 우리나라의 연구 보고에<sup>14)</sup> 따르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친구가 전혀 없거나 한 명 밖에 없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는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형과 기본적인 사회활동도 거부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형으로 분류된다.<sup>15)</sup>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첫째,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둘째, 진학·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셋째, 친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넷째,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섯째,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sup>16)</sup> 이

14)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소장 이시형)와 여인중 박사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팀은 2000년 1월~2002년 5월 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 받은 외래환자 2천409명중 우울증과 불안장애 측정들을 통해 외톨이로 진단 받은 85명(남53명, 여32명 : 13~18세 41명, 19~30세 44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6%인 31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54명은 활동형 외톨이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으며 친구가 전혀 없거나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을 외톨이로 정의내린 뒤 그 유형을 활동형(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과 은둔형(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거부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친구가 없으며, 가족 간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심지어 식사도 혼자 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 몰두하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상을 보이고 응석 등 퇴행적 행동과 공격적 성향도 증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여인중 박사 연구팀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된 31명 중에서 9명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허경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9~10면.

15) 정신의학계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 또는 비정신병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른다. 이소베 우시오 지음,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29면.

16)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임상사례의 경험을 토대

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은 <용부전> 중에서 용부의 게으른 상태가 자세히 언급된 다음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용부(慵夫)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모든 일이 한결같이 게으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용부(慵夫-게으름뱅이)라 부른다. (1)벼슬은 散官으로 直長에 이르렀으며 집에는 (2)5천권의 책이 있지만 게을러 펴보지 아니하며, (3)머리가 헐고 부스럼이 있으나 게을러 치료하지 않는다. 방안에 있을 때는 나태하게 앉아 있고 길에서는 나태하게 걸어 (4)멍청하게 마치 나무 인형 같다. 온 집안 식구가 걱정하여 무당에게 가서 빌기도 했지만 끝내 능히 금할 수가 없었다.<sup>17)</sup>

위에서 (1)에서 (4)에 이르는 부분은 용부의 상태를 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1)에서 “벼슬은 산관(散官)<sup>18)</sup>으로 직장(直長)<sup>19)</sup>에 이르렀다”

로 내려진 것이다.(여인중, 『은둔형 외톨이』, 프리칭 아카데미, 2006 ; 김예슬,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14면에서 재인용.)

17) <용부전>의 번역은 成俔 지음, 한국학연구원 한문학분과 역주, 『진일유고(眞逸遺稿)』, 『한국학연구원 국역총서』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진일유고(眞逸遺稿)』 136면. 원문은 동문선 제101권, <용부전(慵夫傳)> 慵夫 不知何許人也 凡諸謀爲一於慵 故世呼爲慵夫 官至散官直長 家有書五千卷 而慵不披 頭瘍體疥 而慵不醫 在室慵坐 在途慵行 茫茫然若木偶人也 闔室患之 謁巫而禱之 巫不能禁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18) 고려·조선 시대에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官階)만을 보유하던 관원을 말한다. 산계(散階)라고도 한다. 고려의 문·무산계(文武散階)나 조선왕조의 동·서반관계(東西班官階) 제도에서는 관리는 삭직(削職)되지 않는 한 퇴관(退官)하더라도 그 품계(品階)를 보유하고 그 품계에 상당한 예우를 받았으며, 무고하게 해직된 것이 밝혀져 복직될 경우나, 언관(言官)이라는 직책상의 공죄(公罪)로 인하여 해직된 자가 복직하면 그전에 사관(仕官)한 경력을 통산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19) 조선시대 각 관아에 두었던 종7품 관직을 말한다. 각 관아에 두었던 종7품 관직으로, 주로 궁궐 내의 재정·물품담당이문에 배치되어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1393년(태조 2) 7월 관계 제정 때 고려의 제도에 따라 사옹원·내의원·상서원

는<sup>20)</sup> 것은 용부가 출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인물임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에서 “5천 권의 책이 있지만 게을러서 펴보지 아니하며”라는 것에서 용부가 선비들에게 당연하게 요구되었던 학업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관료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은일자증하는 선비들이 흔히 책을 읽기를 즐겨했던 것과는 거리를 둔 용부의 모습은 사회생활과 학업 모두에 염증을 느낀 채 무기력하게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과 겹쳐진다. (3)에서 “머리가 헐고 부스럼이 있으나 게을러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용부가 자신이 병든 것마저도 외면하게 된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4)에서 “나무로 깎아 놓은 허수아비와 같았다.”는 것에서 용부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그가 살아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거의 산송장에 가깝게 피폐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용부의 가족들은 무당을 불러들여 기도를 하지만 그러한 가족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

이로 볼 때 <용부전>의 용부의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른 인물이거나, 게으름을 빙자하여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초연하게 살아가는 인물에 한정되기 보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용부를 은둔형 외톨이로 살면서 그 병리적인 현상<sup>21)</sup>으로부터 탈출하기를

---

등 많은 부서에 1~3명씩 설치하였다. 이와 비슷한 직책의 종7품에는 영(令)·승(丞) 등이 각 부서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1446년(세조 12) 1월 관제 개정 때 모두 직장으로 통일하여 종전의 부사·승·부승 직제를 주부·직장·봉사의 체계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의 약 30개 부서에 이 관직이 설치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20) 이 부분은 용부가 한 때는 벼슬살이를 하던 관료였음을 말해주는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59면 참고.

21) 물론, 용부의 게으름은 의도적인 게으름과 느낌, 삶에 초연한 태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용부전>은 용부가 마침내 게으름을 버렸다는 결말을 통하여 용부의 게으름이 문제적이라는 시각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용부전>은 일종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대하는<sup>22)</sup> 내담자의 처지에 두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용부전>의 용부를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 이해하는 지점에 이르면 <용부전>은 하나의 작품에 머물지 않고 실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 상황을 환기시키고 그 해결지점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동시에 <용부전>의 용부도 작품 속에 가상으로 그려진 인물에 머물지 않고,<sup>23)</sup>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실재하는 인물의 모습에 겹쳐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작품 속의 인물을 우리 삶과 보다 더 밀착시키는 것은

---

이 글에서는 그 문제 상황이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병리적 현상과 연결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22) 은둔형 외톨이는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와 정부는 무대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대책과 무관심속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은 방안으로 더욱 더 자신을 은폐시키고 있다. KBS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송한 “추적 60분—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다”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일깨워줬으며 우리가 관심만 기울인다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줬다. 이날 방송에서는 1년부터 13년까지 방안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이들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또한 외톨이중 38%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와 정부, 가정이 나선다면 많은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mydaily.co.kr 허경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28~29면 참고.
- 23) 이는 작품 속의 인물이 실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인물의 행적 또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하는 생각의 전환을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언급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왕의 논의로는 조수학과 이래종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조수학은 <용부전>의 주제가 不義의 君主인 世祖를 섬기게 되어 志操를 잃은 자신(성간을 말함)의 처세를 스스로 변명한 것이므로, <용부전>의 용부는 성간의 삶을 투영한 인물이라고 보았고, 이래종은 성간의 부지런했던 일상(특히 책벌레로까지 소문이 났던 그의 실상)을 증거로 들어 <용부전>은 가상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한 의탁전기기에 이 전의 주인공인 용부와 그의 행적이 역사상의 실존인물이었던 성간이나, 성간의 행적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한 바 있다. 조수학, 『<慵夫傳>의 托傳性』, 『국어국문학연구』 15집, 1973 ; 이래종,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51~58 참고.

문학치료학의 장점이기도 하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문학작품과 인생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리하여 특정한 문학작품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의문에 접근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인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에 일으키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sup>24)</sup>

그런 점에서 <용부전>의 용부를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을 지닌 인물로 보려는 시도는 문학치료학에서 문학작품과 인생을 같은 방식으로 보려는 것과 그 맥이 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우리들이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문제 상황과 회복 과정’에 대해 보다 잘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만일, 용부가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으로 피폐해져 있는 형국만이 <용부전>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로부터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에 대한 환기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용부전>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용부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기에 <용부전>으로부터 우리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에 대한 환기와 그 회복의 해결 방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성간의 <용부전>에서 찾는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과정

2장에서는 성간의 <용부전>의 전반부를 인용하면서 용부의 게으름이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과 겹칠 수 있음을 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용

24)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08, 250면 참고

부가 근수자와 만난 뒤 은둔형 외톨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달라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정에 비견됨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용부전>에서 용부와 근수자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근수자(勤須者)가 이미 학문이 성취되어 개연히 사람을 구제할 뜻이 있어 그가 배운 것으로 그를 다스려 불려고 하였다. 용부(慵夫)는 바야흐로 게으름병으로 다리를 걸터앉고 머리를 풀어 뜨리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앉아 있었다. 근수자(勤須者)가 “예로부터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살고 게으름으로 실패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두 부지런함으로 스스로 지켰으니 문왕은 해가 기울 대까지 여가가 없었고 우임금은 춘음을 아꼈다. 부지런함에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풍우와 상설이 사시에 두루하며 만물을 육성하는 것은 하늘의 부지런함이다. 하늘은 배워야 되는 것이지 어기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늘을 어기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다.<sup>25)</sup>

위에 나타난 것처럼 근수자는 학문이 성취되자 사람을 구제할 대의를 품은 인물이다. 매우 간략한 근수자의 소개만으로도 근수자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26)</sup> 근수자는 용부를 만나자 용부의 기괴할

25) <용부전>의 번역은 成侃 지음, 한국학연구원 한문학분과 역주, 『진일유고(眞逸遺稿)』, 『한국학연구원 국역총서』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137면. 원문은 동문선 제 101권, <용부전(慵夫傳)>…勤須子 學既成 慨然有濟人之志 以其學來攻 慵夫方以慵之病 踣蹶散髮 瞠目而坐 勤須子曰 自古 人也 莫不以勤而生 以慵而敗 是故聖人 皆以勤自守 文王日昃不假 禹惜寸陰 勤也 不寧猶是 風雨也 霜雪也 周乎四時 載育萬物者 天之勤也 天可學也 不可違也 違天不祥…(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26) 이래종은 “근수자가 성인이라고 내세운 문왕과 우는 유가에서 존중해 마지않는 인물들이며, 그가 말하는 바 자연의 질서도 역시 유사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근수자는 유가적 인물”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래종,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60면 참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에 전혀 놀라지도 않고, 곧장 세상에 성현으로 알려진 문왕과 우임금의 부지런함에 대하여 소개 하고, 하늘의 부지런함까지 거론하면서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부지런함에 대하여 설파한다.

근수자가 문왕과 우임금을 예로 든 것으로부터, 그가 용부에게 부재한 부지런함의 서사를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근수자는 개인적인 용무와 사사로운 욕심을 배제하고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거의 바치다시피 한 문왕과 우임금의 예를 들어, 용부가 지금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근수자는 용부의 내면에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듯한 대의와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려 한다. 이러한 근수자의 의도에 대해 용부는 다음과 같이 응대한다.

용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그대를 가르치려하는데 그대가 어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 인생 백년 동안 마음과 형체가 다 피로하여 낮에는 허덕거리며 일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을 하지 않음이 없다가 밤이 되면 자는 등 마는 등 잠꼬대하다가 아침에 이르게 되니 다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인(至人)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하고 창을 잡고서 그를 쫓아버렸다.<sup>27)</sup>

용부는 부지런함의 가치에 대하여 설파한 근수자에게 부지런함의 무가치함으로 대응한다. 용부는 세상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자신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를 근수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27) <용부전>의 번역은 成侃 지음, 한국학연구원 한문학과 역주, 『진일유고(眞逸遺稿)』, 『한국학연구원 국역총서』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137면. 원문은 동문선 제 101권, <용부전(慵夫傳)>……慵夫莞爾而笑曰 我則教子 子何教於我 人生百年 心形俱勞 晝則營營作役 朝夕乎奔走 無不爲也 夜而假寐 喟嘆而達旦 復何用哉 至人 不如是也 操戈而逐之…(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다.<sup>28)</sup> 이를 통하여 용부의 게으름 뒤에 감춰져 있는 비범성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용부는 은둔하고 있는 잠룡(潛龍)처럼 생각이 깊은 인물 같다. 용부는 근수자가 예상한 것처럼 부지런함의 서사의 부재로 인하여 게으른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기를 요구하는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회의(懷疑)하는 과정에서 은둔이 이루어진 인물로 보이는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용부가 무엇에 관하여 회의하고 있었는가는 그가 근수자에게 이른 말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용부는 “낮에는 허덕거리며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을 하지 않음이 없다가 밤이 되면 자는 등 마는 등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근수자에게 말한 바 있다. 용부의 이 말로부터 헉헉대면서 달리고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 달리는지를 알 수 없는 삶, 숨이 차서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허무해지는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니까 용부의 말은 목적 없이 쳇바퀴 돌듯이 즐기지도 못한 채 매일 매일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노동중독, 일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근수자는 그런 용부의 말을 듣고 부지런함을 강요하기 이전에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깨닫고 용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간다.

28) 이래종은 “至人에 자신을 견주고 있는 용부의 이러한 주장은 濟人에 뜻을 둔 근수자의 경우와는 반대로 老莊의 獨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즉 용부는 超世의 隱逸을 추구하는 인물로 老莊의 人生觀의 소유자였던 것이다.”고 한 바 있다. 이래종,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61면 참고.

29) 은둔형 외톨이들은 외부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세상의 부조리함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를 은폐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근수자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방법을 알았다.”하였다. 이에 그릇에 술을 가득 담고 정성(鄭聲)을 대동하여 기회를 엿보아 그에게 가서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산에는 새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그대와 함께 매우 즐겁게 놀고 싶으니 하겠는가?”하니 옹부가 흔쾌히 웃으면서 소매를 떨치고 일어났다. 어느새 신은 문 앞에 와있고 지팡이는 도로에 나와 있어 수 십년 간의 게으름이 일시에 돌연히 없어져 버렸으며 서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크게 웃었다. 그 뒤에 드디어 부지런함으로 일생을 마쳤다.<sup>30)</sup>

근수자는 옹부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자신이 옹부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잣대로 판단하였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근수자는 옹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옹부와 함께 우정을 쌓는 태도를 취하면서 옹부에게 새로운 만남을 제안하게 된다. 근수자가 술과 정성(鄭聲)을<sup>31)</sup> 매개로 옹부와 함께 즐기는 상황을<sup>32)</sup> 만들어내면서

30) <옹부전>의 번역은 成侃 지음, 한국학연구원 한문학분과 역주, 『진일유고(眞逸遺稿)』, 『한국학연구원 국역총서』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137면. 원문은 동문선 제 101권, <옹부전(慵夫傳)>……勤須子良久而思之曰 余知術矣 於是 盛酒于器 隨之以鄭聲 伺間而進曰 今日風氣喧和 鳥鳴于山 思與子歡聲 可乎 慵矣欣然而笑 投袂而起 履及於門 杖及於道 數十年之慵 一時頓盡 相與舉酒大噱 後透以勤終焉(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31) 정성(鄭聲)은 중국(中國) 정(鄭)나라 때의 가요로 유행하고 외설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성(鄭聲) 부분을 기왕의 연구자들은 기생놀이이라고 풀이한 바도 있다.(이래중은 “盛酒于器 隨之以鄭聲”를 “곧 그릇에 술을 담고 기생을 데리고”로 번역한 바 있다.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62면.)

32) 상담 사례를 읽어 보면 은둔형 외톨이에 속하는 내담자들은 대개 다양한 이론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비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바람직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들은 그 바람직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상은 실천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단순하면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허경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

용부는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이처럼 근수자가 부지런함을 강조하던 예전의 태도를 버리고 용부의 소망을 읽어, 결국 용부를 바꾸어 놓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자폐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을 지닌 용부를 바꾸어 놓은 근수자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치료자 기능을 원만하게 한 셈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비록 그 은둔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회복 과정을 밟아가는 데, 그 회복과정에는 혼란기->안정기->망설이는 시기->회복으로 가는 단계 등이 있다고 한다.<sup>33)</sup> 이러한 회복 과정을 참고한다면, 용부의 은둔형 외톨이적인 모습은 ‘혼란기’로, 용부가 근수자를 거절하는 부분은 ‘망설이는 시기’로, 근수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와 용부를 회복시키는 부분은 ‘회복으로 가는 단계’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용부전>의 치료 과정은 (1)용부가 근수자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안목을 가질 것을 제안 하고->(2)그 제안에 관하여 근수자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sup>34)</sup>->(3)용부가 근수자에게 호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47~68면 참고.

33) 은둔 형태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람 수 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둔형 외톨이는 혼란기(불안, 분노, 고민, 거절, 중압, 자기부정)->안정기(혼란의 소강상태)->망설이는 시기(부모와의 대화, 제3자와의 교류 가능성)->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회복단계, 세상 밖으로의 전진) 등이다.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들은 혼란기, 안정기, 망설이는 시기가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면서 회복되어 간다. 그러므로 이런 프로세스대로 나아가면 회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한다. 이소베 우시오 지음,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152~155면 참고.

서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옹부전>에서 옹부가 부지런함을 예찬하는 근수자에게 반박한 말은 근수자로 하여금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이끌었고, 그 결과 옹부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옹부가 근수자에게 반박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옹부의 말 중에서 “우리 인생 백년동안 마음과 형체가 다 피로하여 낮에는 허덕거리며 일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을 하지 않음이 없다가 밤이 되면 자는 등 마는 등 잠꼬대하다가 아침에 이르게 되니 다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부분은 『열자(列子)』의 권3 <주목왕(周穆王)>편의 내용과 함께 보아야 한다.<sup>35)</sup>

『열자』 <주목왕> 일부 : 尹氏心營世事, 廬鍾家業, 心形具疲, 夜亦昏憊而寐, 昔昔夢爲人業, 趨走作役, 無不爲也, 數罵杖撻, 無不至也, 眠中吸嚙呻呼 徹旦息焉 尹氏病之

위에 소개된 내용은 『열자』 <주목왕>편의 총 9장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周之尹氏大治産>의 일부이다. 원래 『열자』 <주목왕>의 <周之尹氏大治産><sup>36)</sup>에는 주인공인 윤씨와 윤씨의 늙은 하인의 이야기가 대

34) 면담을 할 때 서로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처음에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정된 관계가 구축되면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를 풀어 놓게 되어 좋은 예후를 기대하게 한다. 이소베 우시오 지음,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205면.

35) 이래중은 옹부가 근수자에게 한 말이 『열자』의 <주목왕>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래중,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61면 참고.

36) 열어구 지음, 임동석 엮음, 『열자(列子)』, 『임동석중국사상』 54, 동서문화사, 2009,

비되고 있다. 주인 윤씨는 낮에는 가업을 경영하는데 신경이 쓰여 하인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밤이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고생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윤씨의 늙은 하인은 비록 낮에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생하지만, 밤이 되면 자신이 한 나라의 임금이 되는 꿈을 꾸어 일상이 즐거웠다. <周之尹氏大治産>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이 들고 만 윤씨가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나서, 집안일에 마음을 덜 쓰고 하인들의 일도 줄여주고,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버린 뒤에야 악몽으로부터 벗어나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로 본다면 『열자』의 <주목왕>편의 내용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부지런함이 지나쳐 일신을 해치는 것에 대한 경계라 할 수 있다. 주인인 윤씨의 지나친 부지런함은 그 기저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병이 들게 되는데 이르렀기 때문이다.<sup>37)</sup> 그리고 이것은 <용부전>에서 용부가 “人生百年 心形俱勞 晝則營營作役 朝夕乎奔走 無不爲也 夜而假寐 吟嚙而達旦 復何用哉 至人 不如是也”라고 한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sup>38)</sup>

그러니까 근수자는 용부에게 문왕과 우임금의 부지런함을 예로 들어 용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용부는 근수자에게 오히려 부지런함

---

1~477면.

37) 또한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한다. 이는 윤씨의 늙은 하인이 그의 노고를 위로하는 사람에게 해준 다음 말에서 읽을 수 있다. 윤씨의 늙은 하인은 “人生百年 晝夜各分 吾晝爲僕勞 苦則苦矣 夜爲人君 其樂無比 可所怨哉”라 하여 힘들어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꿈이 있어 가히 원망할 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38) 이래종은 용부가 근수자의 부지런함에 대한 일설에 대한 반격으로 가한 말에는 용부의 도가적인 독선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으며, 특히 그 말은 『열자』의 <주목왕편>의 내용과 유사함을 각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래종, 『<慵夫傳>의 新考察』,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61면 참고.

이 폐해가 되는 사례, 이를테면 『열자』의 <주무왕편>에 나타나는 윤씨와 같은 인물의 지친 삶을 연상케 하는 예를 들어 대응한 것이다. 용부는 근수자가 예로 든 부지런한 삶의 모습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에게는 실천하기 어렵고,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일을 하면서 본질적인 성찰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려준다.<sup>39)</sup>

용부의 말로 하여금 근수자가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용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듯이, 우리는 용부의 말을 통하여 우리 삶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간극, 또는 부지런함으로 포장되어 우리 삶을 흔들여 놓는 일중독의 폐해,<sup>40)</sup> 우리가 주변의 은둔형 외톨이를 대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등 여러 경우를 고려할 여지를 갖게 된다. 그렇기에 <용부전>의 은둔형 외톨이로부터의 회복은 한편으로는 일중독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현실의 위험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에서의 서사란 인간관계의 생성, 위기, 회복의 과정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 데,<sup>41)</sup> 이에 따라 <용부전>을 이해한다면, <용부전>은

---

39)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성취감과 건전한 삶을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나 일에 매여 인생이 일로 인하여 저당 잡힌 것처럼 되고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로부터 멀어지면서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물을 여유조차 없다면 일중독의 문제를 의심 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명복, 『일중독(workholism)의 영향과 원인』, 『진리논단』제14호, 천안대학교, 2006, 35면.

40) 일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레저 활동이나 기타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나 기회 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 인지적 자원이 고갈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일중독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기준이 높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 차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병석·탁진국, 『일중독 성향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22집 2호, 한국 심리학회, 2009, 300면.

용부와 근수자의 만남, 용부와 근수자의 갈등, 용부와 근수자의 관계 회복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서사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부가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2장의 논의와 연결 지으면, <용부전>은 용부(은둔형 외톨이)와 근수자(치료자)의 만남->용부(은둔형 외톨이)와 근수자(치료자)의 갈등->용부(은둔형 외톨이)와 근수자(치료자)의 관계 회복으로 전개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을 포착하고 회복과정을 전망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성간의 <용부전>을 이해한다면, 성간의 <용부전>과 유사한 내용을 가졌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결말로 향한 이규보의 <용풍>과 성현의 <조용>과 같은 작품들도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준하여 볼 때 성간의 <용부전>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으로의 진행에 더 관심을 둔 것이라면, 이규보의 <용풍>은 은둔형 외톨이를 계도시키는 쪽에 관심을 두고, 성현의 <조용>은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이해하는 쪽에 관심을 둔 작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성간의 <용부전>에서 용부와 근수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둘 사이의 소통을 이룬 것과는 달리, 이규보의 <용풍>에서는 게으름에 빠진 거사가 도움을 청했던 객이 준엄하게 거사를 꾸짖고, 게으름에 빠졌던 거사가 반성하는 방향으로<sup>42)</sup>,

41)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근원이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서사의 영역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사란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한 것은 서사의 근원이 되는 지점이나 서사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가 핵심이라고 본 결과인 것이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제9집, 2008.08, 한국문학치료학회, 252면.

42) 이규보, <용풍(慵風)>, 『동문선』 제107권 : 내가 게으른 병이 있어서 이것을 객(客)에게 알리기를, “이렇게 바쁜 세상에 나는 게으름뱅이로 작은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해 나가지 못하며, 집이라고 하나 있는데도 게을러서 풀도 매지 아니하고, 책이 천 권이나 있는데 줌이 생겨도 게을러서 펴보지 아니하며……무엇에든지 게으르지 않는

성현의 <조옹>에서는 게으름을 일으킨 귀신을 떨치고 싶었던 인물이 결국 귀신의 말에 설득되어 게으름을 안고 살아가는 방향으로<sup>43)</sup>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룬 작품들이

것이 없는데, 이런 병을 무슨 재주로 낫게 하겠는가.” 하고 말을 하니, 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러가더니 이 게으른 병을 낫게 해주려고 열흘쯤 지나 다시 와서 말하기를, “……술기운이 독에 짝 찼는데, 혼자서 잔질하기가 마음에 미안쩍은데 그대가 아니면 누구와 같이 마시겠는가. 집에는 시중드는 아이가 있어서 소리를 잘하고 생활을 잘 볼며, 또 비파를 잘 타니, 차마 혼자서는 듣기가 험운(叶韻) 아가씨 선생을 기다리노라. 그러나 선생이 가기를 꺼릴까 염려되오. 잠깐 갈 생각이 없는가.” 하였다. 나는 좋아서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즉시 일어나서……객이 홀연히 게으른 자태로써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반복하여 말하기를, “……야마도 선생의 게으른 병은 오늘로부터 다 나은 것 같소. 그런데 성품을 해롭게 하는 도끼로서는 색이 가장 심하고, 창자를 상하게 하는 약으로는 술이라 이르는데,…” 하였다. 나는 낮빛이 붉어지고 이마에 땀이 났다. 그에게 사과하여, “착하도다, 그대가 내 게으름을 풍자함이며……기욕이 몸에 화를 주는 것이 지독하게 빠르니, 진실로 삼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앞으로 이 마음을 옮겨서 인의(仁義)의 집에 들어가, 그 게으름을 버리고 인의에 힘쓰려고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조금 기다리고 나를 조롱하지 말아주오.”라고 말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 43) 성현, <조옹(嘲慵)>, 『속동문선』 제18권, 잡서(雜書) : 병술년 여름철 성자(成子)는 나가지 않고 흑침(黑喑)을 벗삼아 있자니 꿈 아닌 꿈이라. 정신이 산란만 하고 병 아닌 병이라 되려 진기(眞氣)만 빠진다. 가슴속이 멍치어 무엇이 든 것만 같아서 이에 무당을 불러들여 귀신에게 빌기를, “오직 너는 신이 있어, 나의 폐부(肺腑)에 잠재하여 나의 동정을 엿보니 나에게 큰 병이 된다.……무릇 나의 허물이란, 모두 네가 들어서 만들어 내니 어찌 다른 사람이 없기에 날만 따라서 방황하는 거냐. 너는 어서 나를 버리고, 저기 저 낙토(樂土)로 가라. 나는 너의 누(累)가 없을 것이요, 너도 네 곳을 얻으리라.” 하였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화를 어찌 입히리요. 운명은 저 하늘에 있으니 허물로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의 근로(勤勞)는 화패(禍敗)의 장본이요, 그대의 태일(怠逸)은 복을 받는 근원이야. 세상 사람은 추세를 잘하여 시비가 분분하되, 지금 그대는 물러앉아 아득히 소문이 없고 세상 사람은 물(物)에 팔려 이욕에 날뛰는데, 지금 그대는 걱정 없이 제 정신을 잘 기르니, 그대의 심신(心身)에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가.……나는 장차 그대를 안보할 텐데, 그대가 도리어 나를 나무라니 사람이 자신을 요량 못한다면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므로 성자(成子)는 이에 묵연하여 말을 못하며 그런 잘못을 고칠테니, 그대와 더불어 함께 처하여서 함께 따르자고 하니, 게으름은 드디어 가지 않았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라 하더라도 이규보의 <용풍>이나 성현의 <조용>보다는 성간의 <용부전>이 게으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와 회복과정을 다루기에 더 용이해 보인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을 억압하는 지배적 인물이나, 자신의 고민을 계속 가중시키는 인물보다는 자신과 교류를 대등하게 하는 동반자를 기대하며, 그런 동반자가 치료를 시도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성간의 <용부전>을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치료 방안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한번의 자극으로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해보인다. 그렇다면 은둔형 외톨이의 비관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자기서사를 연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작품서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는 문학치료학의 주요한 개념으로 ‘작품서사’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작품으로 형상화된 서사를 가리키고, ‘자기서사’란 개인을 지배하면서 인생으로 형상화되는 서사를 가리킨다.<sup>44)</sup> 그리고 작품서사와 자기서사간의 상관과 그에 따른 영향력의

44)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에 대한 개념은 정운채에 의하여 주창된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운채,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2, 103~126면; 정운채, 『질투에 대한 영화창작치료』, 한국문학치료학회 제8회 학술대회 발표지, 2004.7.3.;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 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107~138면; 정운채, 『<구운몽>의 독후감을 통한 자기서사의 탐색과 문학치료의 방향 설정』,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8, 31~54면.;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8.31, 7~36면;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08, 247~278면; 나지영, 『문학치료 이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학치료연구』 제1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1, 131~167면; 하은하, 『작품서사 개념 체계와 유용성에 대한 해명』,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

주고 받음은 곧 문학치료학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45)</sup>

성간의 <용부전>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주요한 작품서사로 활용할 경우에 이규보의 <용풍>과 성현의 <조용>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에 관한 다양한 설화들도 함께 활용 가능한 작품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서사와 관련되면서 각기 그 효과를 발휘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심에 <용부전>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용부전>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힘을 지닌 작품이면서, 나아가 사회적 회피장애나 대인공포장애를 위한 작품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대인기피적인 기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장애들이기 때문이다.<sup>46)</sup> 따라서 <용부전>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양상과 회복과정을 보여주면서, 나아가 문학치료 현장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회피장애, 대인공포 장애 등을 위한 작품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리라 전망해본다.

#### 4. 결론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히키코모리라는

---

문학치료학회, 2009.10, 59~81면.

45)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서사를 통하여 자기서사를 치료하기를 기대한다. 정운채, 『자기서사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서사척도』, 『고전문학과 교육』 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213면 참고.

46) 이소베 우시오 지음,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73면 참고.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붙일 수 있는 여러 진단 명 중에서도 사회 공포 장애와 회피성 인격장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이기도 하다.

말은 인터넷,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잘 알려진 말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히키코모리의 우리식 지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부터 발견되고 그 문제점이 부각된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할 병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대 사회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정책적으로 대처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sup>47)</sup> 그렇지만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기 이전에 연구자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치료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성간(成侃)의 <용부전(慵夫傳)>을 주 자료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회복 과정을 전망하였다. <용부전>에서 자폐적인 게으름을 보이던 용부가 성실의 표상과 같은 근수자까지 깨우치면서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마치 극적으로 병을 이겨낸 투병의 과정에 견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부전>의 어떤 부분이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과 유사한가를 살폈다. 그 결과 용부가 게으름이 지나쳐 병적으로 보이는 상태에 빠져 있던 부분은 은둔형 외톨이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부전>의 용부가 세상으로부터 등 돌렸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이 바로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 상황에 처하였다가 회복의 과정으로 접어드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용부전>에서 용부가 자신을 계도하려고 온 근수자(勤須者)에게 준엄하게 이르는 말은 실은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위태로움에 대한 경계이며,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압박에 눌려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수많은 일중독자들에 대한 경계도 담긴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47) 허경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85면.

것이였다. 그런 점에서 성간의 <용부전>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적 힘과 일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성간의 <용부전>은 이규보의 <용풍>과 성현의 <조용>과도 유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 작품이기도 했다. 따라서 문학치료현장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 <용부전>과 함께 <용풍>, <조용> 등을 작품서사로 활용한다면 각각의 특장에 따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동문선

해동잡록

진일유고

김예슬,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1~98면.

김왕배, 「노동중독-직무태도와 조직특성의 관점에서 본 사회심리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41집 2호, 2007, 90~117면.

나지영, 「문학치료 이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학치료연구』 제1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1, 131~167면.

노여진,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의 비교 고찰-발생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성간(成侃) 지음·한국학연구원 한문학분과 역주, 『진일유고(眞逸遺稿)』, 『한국학연구원 국역총서』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1~140면.

신기형, 「가전체 문학론고(下)」, 『국어국문학』 17, 국어국문학회, 1957, 65~76면.

열여구 지음, 임동석 엮음, 『열자(列子)』, 『임동석중국사상』 54, 동서문화사, 2009, 1~477면.

유명복, 「일중독(workholism)의 영향과 원인」, 『진리논단』제14호, 천안대학교, 2006, 35면.

- 윤주필, 「우언문학과 초기소설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36~63면.
- 이래중, 「〈용부전〉의 신고찰」, 『태동고전연구』 6, 한림대학교 태동연구소, 1990, 49~76면.
- 이소베 우시오 지음,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1~234면.
- 정병석·탁진국, 「일중독성향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22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9, 295~317면.
- 정용기, 「게으름뱅이 이야기의 유형과 특징」, 『반교어문연구』 2, 반교어문학회, 1990, 84~94면.
- 정운채,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2, 103~126면.
- \_\_\_\_\_, 「〈구운몽〉의 독후감을 통한 자기서사의 탐색과 문학치료의 방향 설정」,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8, 31~54면.
- \_\_\_\_\_,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107~138면.
- \_\_\_\_\_,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8, 7~36면.
- \_\_\_\_\_, 「자기서사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서사척도」,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213~241면.
-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 247~278면.
- 하은하, 「작품서사 개념 체계와 유용성에 대한 해명」, 『문학치료연구』 제13집, 2009.10, 59~81면.
- 허경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1~105면.
-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ABSTRACT

Seclusion Lonelier(引き籠もり [Hikikomori]-은둔형 외톨이)]'s Subject  
Matter and Recovery Process through Seon-gan(成侃)'s  
<Yong-bu-Jeoun(慵夫傳)>

Kang, Mi-jeong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a work which <Yong-bu-Jeoun(慵夫傳)> focus on the problem of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and that person's recovery process. Until now, <Yong-bu-Jeoun(慵夫傳)> has been studied for the type of Ga-Jeon literature(假傳體 文學), satirical prose(諷刺 散文), lazybones story(게으름뱅이 이야기). You will see this article attention to the literary epic for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in this time. Specifically, in the second chapter, we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Yong-bu(慵夫)' of <Yong-bu-Jeoun(慵夫傳)> and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And then we suggest the form of 'Yong-bu(慵夫)' is similar with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In the third chapter, we suggest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and that person's recovery process account for the change of the phenomenon appears that 'Yong-bu(慵夫)' meeting 'Gn-su-ja(勤須子)'. Especially, 'Yong-bu(慵夫)'s suggestion for 'Gn-su-ja(勤須子)'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suggestion point out the harmful effect of the work-aholism(일중독), and also the suggestion of "Gn-su-ja(勤須子)" who worried about 'Yong-bu(慵夫)'s saying has similar significance because the major therapy for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is the suggestion of play. That is not for the suggestion of work. After that, We could establish literary therapeutic effect about Seclusion Lonelier(은둔형 외톨이) by utilizing Seon-gan(성간)'s <Yong-bu- Jeoun(慵夫傳)>.

**Key Words** Seon-gan, <Yong-bu-Jeoun>, Seclusion Lonelier, Recovery Process,  
Work-Aholism, Literary Therapeutic Effect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